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75)

제3부 :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15 2) 96사단 주둔지 (14) 관음사 평굴 일대  
인공 갱도와 천연동굴이 결합한 군사기지

입력 : 2007. 08.02. 00:00:00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층굴 구조를 보여주는 평굴 내부. 평굴 내부 평탄지형과 불에 탄 흔적. 평굴주변 갱도내부에 당시 갱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시멘트로 입구를 마감한 갱도.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평탄지형에 완성도 높은 갱도진지 구축 일본군 주둔지 이용 용암동굴 조사 시급

태평양전쟁 시기에 제주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천연의 용암동굴마저 전쟁기지로 이용한다. 제주 용암동굴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세계적이지만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제주시 조천읍의 와흘굴이다.

와흘굴은 일본군이 주둔을 위해 동굴내부를 파괴하는가 하면 비상출구를 만들기 위해 동굴천장을 뚫은 현장이 취재팀의 탐사로 처음 밝혀졌다.

이 지역 주민인 조천읍 와흘리 임완송씨(1932년 생·와흘리 1570번지) 역시 일본군 2백여 명 정도가 마을에 머물며 굴 내부에서 발파 등 작업을 했다고 증언 이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한라산 관음사 등반로 근처의 평굴(해발 680m) 역시 주변의 일본군 갱도와 관련돼 있어 주목된다. 평굴 주변에 일본군 갱도진지가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동굴 내부에 인공적으로

평탄지형을 만든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평굴 내부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흔적은 굴 안 깊숙한 곳에서 확인된다. 잔자갈을 깔고 석축을 1~2단 쌓아서 평탄하게 만든 지형이 나타난다. 공간도 비교적 꽤 넓다. 또한 동굴 안 호수가 형성돼 있어 물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일본군 갱도는 평굴을 정점으로 해서 50~1백m 이내에 산재해 있다. 평굴 및 갱도 주변에는 석축으로 쌓은 돌담들도 10여 곳 이상 볼 수 있다.

산악인 신용만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석축구조물은 갱도를 구축하고 주변에서 숙영하기 위해 만든 시설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일대 갱도는 길이가 12m에서 20여m로 짧지만 수많은 갱목과 입구를 시멘트로 마감했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다. 한라산 고지대에서 이처럼 완성도 높은 갱도진지가 확인됐다는 점은 평굴 주변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평굴 주변은 일본군 제96사단 사령부와 그 예하의 292연대본부가 주둔했던 산천단 및 삼의양 오름 일대와는 직선거리로 2~3km에 불과하다. 산천단 및 관음사 일대 일본군에 대해서는 실제적 증거인 갱도진지 이외에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있다.

안재만씨(1931년 생·제주시 삼도2동)는 "산천단 일대에 일본군 제96사단 사령부가 있었고 도깨비도로 아래쪽 '섯굴치'에는 2연대(292연대) 본부병력이 주둔했다"고 증언했다. 도깨비도로 남쪽에는 기마부대가, 관음사 야영장 근처에는 야전병원이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야전병원 막사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백m 이상은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로 볼 때 평굴 일대 일본군은 제96사단 예하의 292연대본부 소속 병력이 주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깊숙한 밀림지대인 이곳은 사단사령부와 연대병력 및 야전병원 등이 인근에 자리해 있는 요충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산천단 일대는 주저항진지로 구축된 군사요새다. 이곳이 밀릴 경우 일본군은 한라산 고지대에 위치한 북곽진지로 후퇴해서 최후의 결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평굴 일대의 갱도는 일본군이 밀릴 경우를 대비한 진지로 구축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들은 제주도내 오름 등에 갱도만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에서처럼 천연동굴마저 저항진지로 이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군들이 용암동굴마저 전쟁기지로 이용하고 훼손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아직껏 알려지지 않고 있어 종합적인 실체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순원연구원(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평굴과 주변갱도들은 계곡을 끼고 평지에 지하로 구축되어 있는 점이 다른 곳의 갱도들과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다. 또 "갱도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입구를 시멘트와 돌을 이용해 조적쌓기로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고, 완성도가 높은 점 등으로 미루어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시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탐사포커스/평굴이란?]용암동굴 특징 뚜렷...문화재 지정해야

평굴은 해발 680m 지점에 위치한 천연 용암동굴로 때문지 않은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한라산 관음사 등반로 인근에 있는 평굴은 제주도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용암동굴의 하나이다. 평굴의 위쪽에는 구린굴이 위치해 있어서 같은 동굴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굴의 형성 시기는 약 3만 년 전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한라산 정상부가 만들어지는 시점으로 제주도 오름이 만들어지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종합하면 평굴은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가장 젊은 시기에 형성된 용암동굴의 하나로 구린굴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몇 년 전 도로확장공사 도중에 발견된 한라산 '아리랑고개 동굴'도 여기에 해당한다.

평굴 내부에는 용암종유 및 용암이 흐른 흔적인 새끼줄 구조와 2층굴의 특징 등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동굴내부에는 호수가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평굴은 최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만장굴처럼 규모나 길이가 크지는 않지만 용암동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